

31일 폐막...미술축제 관람 서두르세요

대규모 문화 축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오는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작품 감상을 즐겼고,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서도 다양한 작품을 만났다. 아직 관람하지 못했다면 서둘러 전시장을 찾아보자.

**GWANGJU
DESIGN
BIENNALE
2021**

디뮤지엄과 완다바르셀
로나가 협업한 'From
color to eternity'



홀로그램 조수미 공연, 수천개 종이꽃, 식물 극장 인기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 음악, 다양한 의자컬렉션 눈길

수천개의 종이꽃이 만들어내는 황홀한 모습, 나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기계 엄마, 홀로그램으로 만나는 조수미의 공연, 바쁜 삶에 한 템포 쉬를 전하는 캠프.

2021 광주비엔날레에서 만나는 화제작들이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부터 AI, 메타버스 등 최첨단의 기술이 디자인과 어우러진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감성을 전하고 있다.

'디자인(Design)'과 '레볼루션(Revolution)'의 합성어인 '디-레볼루션'을 주제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올 행사에는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개 국가 421명의 작가 및 국내외 기업에서 총 1039종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주제관에서는 디뮤지엄과 완다바르셀로나가 협업한 'From color to eternity', 직접 흙을 밟고 새소리와 물소리를 만나는 '식물 극장', 더이상 불을 밝히지 않는 폐선의 집어등을 조합해 작품으로 구현한 부지현 작가의 'Luminous' 등의 작품이 인기다.

알렉산드로 멘디니의 '푸르스트 의자' 등 다양한 의자 컬렉션

을 만나는 색션은 관람객들이 흥미로워하는 공간 중 하나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Mother of Pear Collection' 등 4개의 작품은 직접 앉아볼 수도 있어 인종차를 찍는 사람들도 많다.

20여개 대형 테이블마다 각각의 주제로 작품이 전시된 2전시관은 관람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으로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색션이다. '레게음악의 왕' 밥 말리의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흥미로운 공간으로 헤드폰을 끼고 직접 음악을 들어볼 수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안창욱 교수 연구팀이 제작한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의 음악을 만나는 'Peace of mind', TEAM SCI의 '마스크 미작용시()'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은성-양재희의 'Resonant voice' 등은 과학과 문화가 만나는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그밖에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김상연 작가의 '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영동상상의 '깍감소:레터빌런의 침입' 등도 흥미롭다.

지난 1일부터 선보인 온라인 전시관에는 3D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주제관 등 5개 전시관 및 전시 콘텐츠를 현장감 있게 구현했다. 관람객들은 360° VR뷰를 통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완벽하게 재현된 전시품들을 만나게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021전남국제
수목비엔날레**

윤석남 작
'사람과 사람 없이'



법정스님 방, 김지희·황주리·윤석남 작가 등 눈길
100년 역사 유달초등학교서 '신세대의 도원경' 전

2021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노느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다.

'수목 없는 수목(無木水木)', 수목은 도처에 있다'를 주제로 구성된 비엔날레 1관(목포문예회관)은 모두 7개 전시실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을 채색으로 담아낸 김지희 작가의 '포장된 미소', 솟아루로 작업한 이재상의 '달빛', 유기권 등 200여 마리 개와 그들을 보살피는 여인의 모습이 어우러진 윤석남 작가의 '사람과 사람 없이'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코로나 시대상을 반영한 황

주리 작가의 '그대안의 봄', 법정스님의 글씨와 그림 등을 가져와 꾸민 법정스님의 방도 인상적이다.

비엔날레 3관으로 활용된 100년 역사의 심상소학교(유달초등학교) 전시장에서는 '신세대의 도원경'을 주제로 젊은 작가들의 재기넘치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으며 2층 강당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전 세계 18명 작가의 36개 작품을 영상으로 제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생활 속의 수목'을 지향한 4관(진도 남도전통미술관)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디자인적 요소들이 담긴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5관인 소치미술관에서는 이영희 등 디자이너들의 공예, 도자기, 의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그밖에 6관(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는 '목연(墨緣)-상생과 화합의 수목 이야기'를 주제로 국내외 69명의 국제교류전 및 영호남교류전이 펼쳐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윤진철 명창 '판소리 눈대목을 만나다'

29일 광산문화예술회관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등 판소리 작품의 중요한 대목만을 모아 선보이는 무대가 펼쳐진다. '2021 답설 판소리 눈대목을 만나다'가 오는 29일 오후 7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 사업의 하나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윤진철<사진> 명창이 마련한 무대로 다양한 판소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공연에서는 '단오놀이'를 시작으로 '춘향가' 중 '만남', '기약없는 이별', '심청가' 중 '인당수 꽃잎 되다', '수궁가' 중 '토끼 용궁 탈출', '적벽가' 중 '적벽강 불 지르다', '군사점교' 등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산삼은 반락', '개고리타령' 등 남도민요로 꾸민다.

무대에는 윤종호·방수미·최윤석·문수현·송보라·오현서·한금재·오혜원·이정화·김승지·윤영진 등 25명이 오르며 고수 박시양과 이왕재를 비롯해 아쟁 서정호, 가야금 문성혜, 대금 임황철도 함께한다.

한편 윤명창은 제2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



국대회 판소리 부문 대통령상, 제3회 서암전 통문화대상, KBS 국악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한국음악과 겸임교수, 전북대 한국음악과 강의전담교수, 문화예술네트워크 프랙탈 대표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960-886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글과 한문이 어우러져...

문재평 초대 서예전, 11월1일까지 갤러리 관선재

경현 문재평 초대 서예전이 오는 11월1일까지 예술의 거리 갤러리 관선재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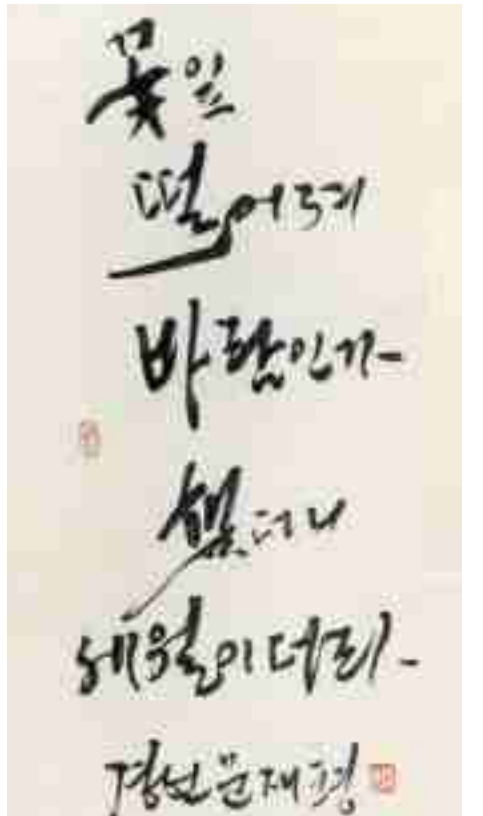
이번 초대전에서 문 작가는 다양한 한글·한문 서체의 작품을 전시한다. 그의 글씨는 정형의 틀을 벗어나 너그럽고 여유로움이 어우러져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이 특징이다.

전시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글을 소재로 한 '마음꽃', 김용옥의 '중국일기', 윤동주의 시에 자신의 소회를 덧붙인 '달같이' 등을 비롯해 마음에 위로를 전하는 글귀들을 자유분방한 한글 서체로 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경현서예연구원을 운영하며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문 작가는 1998년부터 무등한글서예연구회, 연변문자예술협회와 함께 한민족 서예교류의 일을 꾸준히 진행, 한글서단을 뜻이 지키고 있다.

호남대 미술대학 대학원에서 서예를 전공한 문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서예가협회 이사,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이사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꽃잎 세월'

한국청소년영화제 영상작품 11월 19일까지 공모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과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제23회 한국청소년영화제 영상작품을 오는 11월 1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세상을 향해 '미래'를 외쳐라!'란 슬로건을 내걸고 열리는 이번 영화제 작품 공모는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장르에 제약이 없으며 런닝타임 25분 이내다. 작품 주제는 '청소년이 바라는 미래' (특

별색선 '청소년, 민주주의와 평화를 말하다')이며, 2020년 7월 이후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이면 된다.

응모 자격은 만 13~18세 중·고등학생(대한학교 포함) 및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국청소년영화제 다음 카페 또는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365-131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40년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